

# 나나나 선교 업데이트



2010년 4-5월

Cuernavaca, Morelos, MEXICO

B. JUAREZ  
P. CORTEZ  
CUAUHTEMOC  
RIVE TIZOC  
TEMIXCO  
LAZARO

## 열정만으로는 ... (잠 19: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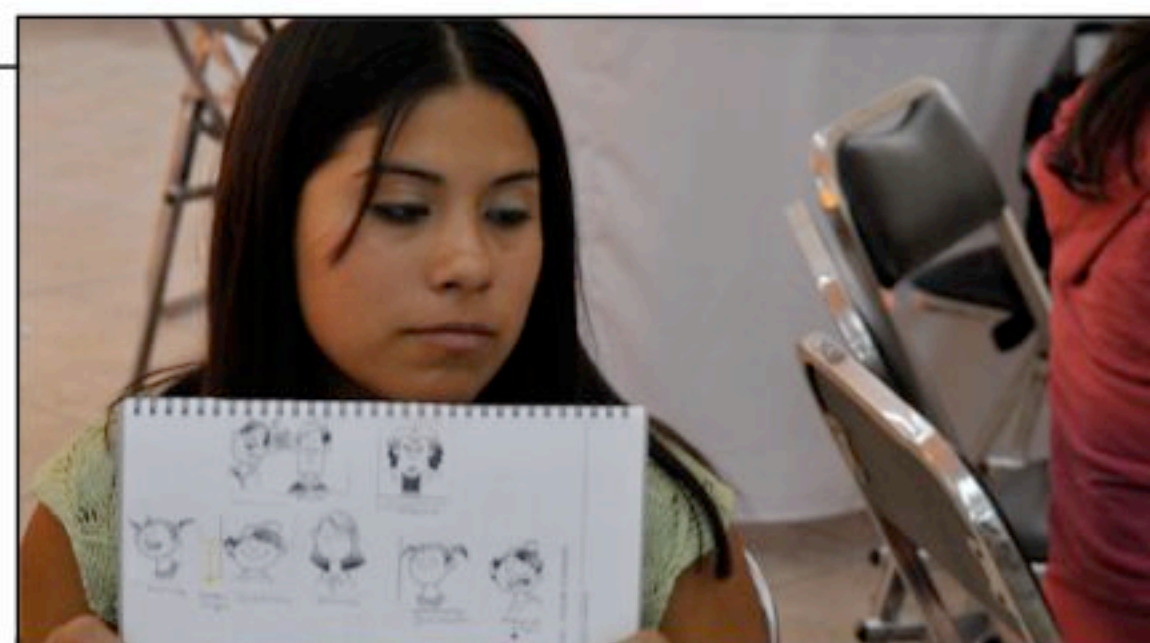
하나님의 일이라면 무엇이든 하리라!는 우리의 구호는 종종 우리 스스로를 원치 않는 곳으로 이끌수 있음을 새삼 깨닫습니다. 이런 구호 아래 우리는 단지 열정에 사로잡혀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망각할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과연 무엇이고 어떻게 감지할 수 있을까요? 사역을 하다보면 본의와는 다르게 내가 드러나 버리는 경우가 종종있음을 아시나요? 물론 열정을 잃으면 안되겠지만, 그렇다고 열정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일을 세우기보다 오히려 내 것으로 만들고마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로 움직임은 물론이요, 그분의 스피드대로 성급함없이 따르는 것이 가장 현명한 사역자임을 다시 깨닫습니다.

## 작은것을 구했는데 기대 이상의 응답을 ...

내적치유 후속성경공부를 시작한지 어제같은데 끝이 보이기 시작하네요. 격주로 만나다보니 8주 성경공부가 16주가 되어가고 중간에 다른 사역으로 미뤄지는 경우도 있었지요. 하지만 결석하지 않고 서로의 삶을 나누는 자매들이 너무나 고맙습니다. 성경공부가 좋다고 신이나서 가끔 친구들과 동반하는 자매들도 있지만 내용이 익숙치 않아 그만 중도하차하고들 맙니다. 그녀들에겐 좀 무리이지요.

세미나 강의노트를 다시 한번 펼쳐가면서 우리의 상처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동안 얼마나 치유되었는지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많은 치유가 눈에 보이네요. 하지만 치유되는 것만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명의 치유없는 상처중 허덕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우리는 어떻게 그들을 도울수 있을까? 입을 모으기에 힘쓰기 시작하였지요. 남을 위하여 염려하는 성숙해진 자매들이 대견스럽고 흐뭇합니다. 내가 이렇게 기뻐할수 있다면 자매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

"우리는 치유의 공동체입니다. 믿음생활은 혼자하기 너무나 힘듭니다.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하는 길입니다." 매번 만날때마다 강조하는 말입니다. 서로를 위한 중보시간을 빠트리지 않으려 합니다. 감사하게도 그녀들의 기도가 많이 응답되었습니다. 먼저 아들을 위해 기도하던 자매(#3사진)가 기도응답을 경험하며 감사하였지요. 몇일전 그녀의 아들(16살)이 불쑥 교회를 다니겠다고 하면서 기왕이면 세례까지 받겠다고 하였다네요. 아들의 말에 엄마는 얼마나 기뻐하였던지... 아직 행동화되지는 않았으나, 조만간 그 아들이 교회출석은 물론, 회개함으로 세례의 복까지 받도록 기도합니다. 또 다른 자매는 신용보증을 잘못해줌으로 협박전화에 시달리고 있었지요. 위하여 기도한 몇주후 독촉에 시달리지 않으려고 조금 생긴 돈을 가지고 은행에 갔더니 이게 웬일인가? 원금이 반으로 줄어있는게 아닙니까?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또 어떤 청년 자매(#1사진)의 경우 평소에 그녀를 괴롭히던 마약범 중년 아저씨를 위해 중보하였습니다. 기도내용은 단순히 자매를 괴롭히지 않도록 해달라는 간구였는데 안타깝게도 몇일후 그 남자가 사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는 그것이 아니었는데요..." 우리 모두는 감사하기보다 안타까와하였지요. 자매는 "그의 영혼은 어디에 갔을까요?"하면서 눈물을 글썽거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녀중에 자리잡은 증거입니다. 이들 자매들은 이번 7월초 Salamanca지역 내척치유 세미나를 섬기려고 저희와 함께 길을 떠납니다. 먼저 받은 은혜를 나누고자하는 자매들의 마음이 너무나 귀합니다.



CHRISTIAN REFORMED  
WORLD MISSIONS  
www.crwm.org

선교부 연락처: CRWM, 2850 Kalamazoo SE, Grand Rapids, MI 49560 ☎ 616.224.0700  
개인 웹홈피: www.nanana.org 혹은 http://nanana2.blogspot.com/ ... 이멜: chiapslee@gmail.com



1

꾸에르나바카 중 영적으로 음침한 지역(?)에 또 하나의 교회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평범해 보이는데, 현지인들은 몸을 사리는 지역이지요. 일일 전도집회를 시작으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전도지와 초대장(1, 2, 4)을 들고 길목마다 들어섰을때 약간 어수선한 분위기를 느낄수 있었습니다. 인기척이 뜸한가 하면 간혹 보이는 사람들은 주로 주정하는 남정네들 이었지요. 하도 조심하라는 지시를 많이 들은 나머지 우리는 처음 길목을 돌아설때마다 약간 섬짓하기는 하였지만 조금 지나니까 이상할 정도로 익숙해졌습니다. 적성인가요? 집회는 동네운동장 한 구석을 빌려서 했는데 어둑해지니까 구장은 아주 조용해 졌습니다. 비록 집회를 통해 10명의 영혼을 추수하기는 하였지만 영화상영까지 하면서 주위가 캄캄해지자 얼마나 마음들을 졸여하던지... 사진의 호세 루이스 형제(6)의 결단하는 모습.을 보며 수고하신 멜렌데스 목사님(5)께 특히 감사드립니다.



2



4



5



6



7



3

2-3달간 준비해온 성경암송대회 ... 처음에는 행사자체에 대한 이해가 안되어 얼마나 애먹었는지요. 여러분 반복된 설명으로서 비로서 이해된 교사들은 참가자들을 동원하였고, 100여명이 넘는 수를 모여 얼마나 열심히들 외웠던지 참으로 치열할 정도였습니다. 가장 어린 참가자 바네사(3)부터 교사 스스로까지 모두 참가하였답니다. 일부러 참가도를 높이려고 상품도 푸짐하게 준비하였더니 더욱 놀라운 반응이 있었습니다. 행사중 약간의 잡음도 있기는 하였는데, 결국 준비과정에서 열심을 보였던 교사들과 그들이 섬기는 교회들이 모든 상품을 휩쓸어가는 결과(7)를 낳았습니다. 일을 치루고 보니 결국 마음을 준 이들이 승리하는 것임을 다시금 확인할수 있었습니다. 수고한 모든 교사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들의 수고를 칭찬합니다.

라 라구닐라 지역(↑)

교회개척

교사사역

어린이 성경암송대회(↑)

교회방문

치아파스 교회 젊은목사의 감사예배

언제나 방문해도 마음이 평안해지는 고향같은곳 치아파스를 다녀왔습니다. 에우세비오 목사부부(8)가 이런저런 감사거리가 많다면서 예배의 재단을 쌓았는데 동네축제(10)였습니다. 그동안 부족한 저희 부부를 통하여 배운것도 많고 아울러 사역에도 큰 기쁨이 있다며 얼마나 기뻐하던지요. 비록 사택은 아직도 나무판자 신세이지만 저들은 감사한 마음을 살진 소 한마리(9)를 대신하여 감사의 제물로 바치는 넉넉함을 표하기도 하였습니다. 더우기 젊은 형제는 저를 둘째 아버지, 즉 영적 아버지라 그동안의 관계를 짧게 교회앞에 설명하는데 제 마음이 몽클했습니다. 은혜를 끼치러 갔다가 오히려 큰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오랫동안 만난 소경찬양자 후안(11)도 얼마나 반갑던지요.



8



9



10



11



CHRISTIAN REFORMED  
WORLD MISSIONS  
www.crwmm.org

선교부 연락처: CRWM, 2850 Kalamazoo SE, Grand Rapids, MI 49560 ☎ 616.224.0700  
개인 웹홈피: www.nanana.org 혹 http://nanana2.blogspot.com/ ... 이멜: chiapslee@gmail.com